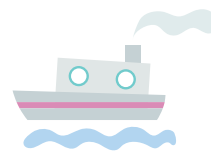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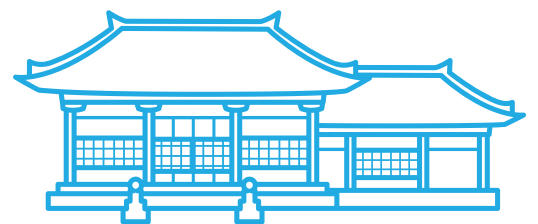




재생이!



군산시 도시재생지원센터

54021 군산시 구영7길 129
T. 063. 454. 4476~9 F. 063.442.1168

우체통거리 제6회 우체통거리 손편지축제

깨끗한 우체통거리 주민들이 함께 만들어요!

군산 우체통거리 경관협정운영회가 거리 환경 정비에 나섰습니다. 우체통거리 주민들은 직접 할 수 있는 일은 외주로 처리하지 않고 직접 수행합니다. 대표적으로 거리에는 길가에 황금사철나무 꽃 박스들이 즐비하게 놓여있지요. 이 나무들이 보기 좋게 잘 자라도록 물을 주고 보살피기를 주민들이 여러 해 동안 잘 해오고 있습니다. 각 상가에서는 기본적으로 매주 수요일 물주기를 하고, 주민들은 꽃 박스가 통행하는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고 아름다운 거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꽃 박스가 매우 무겁지만 반듯하게 놓여있도록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너무 낡거나 부서진 박스의 보수작업은 전문 업체의 도움을 받습니다.

비용 부족으로 황금사철나무를 심지 못하고 있던 꽃 박스들에도 이번에 황금사철나무를 심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벤치의 페인트와 꽃 박스 식물 관리를 위해 우체통거리상가 카페리오(대표 조성근)에서는 페인트, 식물영양제, 살충제등을 기부하고 직접 상인들과 페인트 작업을 함께 진행함으로써 주민 스스로가 거리를 위해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말하는 우체통 미션을 주는 상가 앞 캐릭터 우체통과 쉼터, 포토존으로 사랑받는 상가 앞 벤치도 각 상가가 닦고 돌봅니다. 캐릭터 우체통의 칠이 벗겨진 경우는 최소 비용으로 거버넌스 일원인 예술가들의 도움을 받고 있고, 각 상가 앞에 사철나무 꽃 박스와 벤치들도 주민들이 직접 나서서 페인트를 칠하고, 벽에 늘어져서 보기 흉했던 통신선을 주민의 노력으로 제거하였고, 도색도 깨끗하게 새로 하였습니다.

느린 우체통과 소원 우체통이 있는 손편지 쓰는 곳을 시민들이나 관광객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조명이 들어있는 우체통 간판을 새롭게 제작하여 설치하였습니다.

군산 우체통거리는 매주 수요일마다 주민회의와 매장앞 청소와 화단 물주기를 진행하면서 자발적인 거리 환경을 가꾸고 주민들이 서로 화합을 이끌어가는 우수 사례로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 30선 선정, 도시재생 우수사례 발표대회 최우수상을 수상했으며, 특히 '손편지 축제'는 올해 전북도 지역특화형 육성사업 공모에서 우수축제로 선정되는 등 성과와 가치를 인정받으며 군산의 한 콘텐츠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우체통거리
THE MAILBOX STREET

손편지 만나는 곳

도란
도란

이웃
사촌

나눔

소통과
배려

다름을
인정하는



우체통거리 제6회 우체통거리 손편지축제

홍보관 이용의 날

2023년 군산 우체통거리 제6회 손편지축제를 앞두고 군산 우체통거리에서는 다양한 사전 프로그램들이 진행되면서 시민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지난 5월 20일부터 시작하여 7월 1일까지 총 10회를 실시하는 ‘홍보관 이용의 날’ 프로그램 참가자는 매주 토요일마다 세 가지의 활동에 참여하게 됩니다. 다양하고 재미있는 ‘공예 체험’, 무료 제공되는 엽서에 나 자신에게 또는 가족과 이웃을 따뜻하게 응원하는 ‘응원엽서 쓰기’, 전문가가 안내하는 ‘우체통 거리 투어’ 등이 매회 진행됩니다.

‘홍보관 이용의 날’ 프로그램에 참여 가능 총원은 200명. 참여희망 접수를 시작하고 단 하루 만에 신청자가 쇄도하여 접수가 조기 마감 되었습니다.



1. 공예체험

- ▲모스이끼 우체통 ▲우체통 모형 전등 ▲자개 머리핀 ▲타일 공예 ▲시나몬 캔들 ▲색 양말목 뜨개 가방 ▲LED 북 스탠드 ▲라탄 캠핑전등 ▲꽃 한송이 풍선 ▲드림 캐처 총 10회에 10가지의 공예 체험



2. 응원엽서 쓰기

홍보관에서 제공되는 응원엽서에 나 자신에게 또는 가족과 이웃에게 따뜻한 응원글을 써 우체통거리 응원 우체통에 넣으면 제6회 손편지 축제 개막식에서 시상도 하고 기념품도 증정할 예정입니다. 응원엽서는 우체통거리 홍보관과 글라스월드 안경점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3. 우체통거리 투어

‘왜 우체통거리가 되었는지’ 설명을 듣고, 태양광 가로등에 걸려있는 세계 여러 나라의 우체통을 보면서 퀴즈를 풀어보기도 합니다. 상가 앞 캐릭터 우체통에 있는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읽으면 간단하고 재미있는 미션을 받게 되는데, 다양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느린 엽서를 쓸 수 있는 장소’와 ‘느린 우체통 있는 곳’ 등에 관한 설명도 들었습니다.



군산 우체통거리 경관협정운영회 배학서 회장님 말씀

홍보관 이용의 날은 제6회 손편지축제를 앞두고 시민들에게 군산 우체통거리를 알리고 지역축제에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첫날부터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즐겁게 체험하는 모습을 보고 오히려 더 본축제 준비를 잘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체통거리에 놀러오세요!

해신동 **군산수산물종합센터** 개장

지난 5월 24일 입점을 시작으로 5월 26일
 금요일에 군산수산물종합센터에 새로운 상
 점들이 개장하였다.

새로 개장한 군산수산물종합센터 1층 건물
 은 싱싱한 활어회와 조개류, 생선류, 각종
 젓갈류 등을 판매하는 75개의 점포로 이루
 어져 있고, 2층 건물은 1층에서 구매한 활
 어회나 해산물들을 바로 싱싱하게 먹을 수
 있는 상차림 식당으로 이루어져 있다. 깔끔
 하게 정리된 새로운 건물인 만큼 상인들도 물건진열을 하며 새로운 의지
 를 다지는 모습을 보였다.



새 건물 입주에 앞서 지난 4월 28일엔 시장 내 수산물종합센터 앞까지
 도로 재포장 공사가 이루어졌다. 노후화된 도로와 보도블록에 쌓아 놓은
 각종 오래된 폐기물들과 어 상자, 쓰레기 등을 수산식품정책과 주관하여
 깨끗이 정리했고, 도로 재포장 공사까지 이루어졌다.

해신동 시장이 계속 발전하는 데는 시장 상인들의 적극적인 주변 정리
 와 발전된 서비스 모습이 많이 필요로 할 것이다. 여기에 맞춰 지역 상품
 홍보에도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군산 대표 브랜드인 군산 박대만큼 군산 흥어 또한 전국 최대생산지로
 급부상하고 있다. 생산지가 흑산도로 유명한 난류성 어종인 흥어가 전국
 생산량의 45%를 차지하면서 군산지역 브랜드화할 계획이다.

누구 한 사람만의 점포가 아닌 모두의 시장이라 생각하고, 공동체의식
 을 갖고 적극적인 참여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도시재생현장센터에선
 이에 맞는 주민역량강화교육과 환경캠페인도 꾸준히 실행할 계획이다.

해신동 주민 상인 모두가 화합하여 물건 좋고, 싸고, 친절하고, 깨끗한,
 편리한 시설을 갖춘 시장이라는 좋은 평을 가질 수 있도록 자리매김하여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싱싱한 먹거리와 관광의 명소로
 다시 찾고 싶은 군산수산물종합센터로 발전되길 하는 바람이다.



해신동 도시재생 현장센터 마을매니저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군산시 해신동 도시
 재생 현장 지원센터 마을매니저 오
 양순입니다.

새로운 도전에 대한 포부를 가지
 고 도시재생 마을매니저에 지원하
 게 되었습니다. 해신동 현장 지원
 센터 마을매니저로서 활동한 지 얼
 마 되지 않았지만, 마을매니저로서
 해야 할 역할을 충실히 하고자 도
 시재생에 대한 교육도 받고 열심히
 배우며 익히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이루어질 도시재생
 사업이 주민들에게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매개체를 통한 홍보역할
 과 주민들의 다양한 생각과 자신이
 절실하게 생각하는 주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공통의 관심사를
 함께 만들어 보는 소통의 장을 이
 어주는 중간 지원조직의 마을매니
 저로서, 행정과 주민 사이에서 역
 할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노력하겠
 습니다.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지
 켜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살만한 도시, 올 만한 군산, 군산시 소통협력센터를 소개합니다



소통협력센터 김성령 실장

소통협력센터란?

우리 시는 작년 12월 행정안전부의 주관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 사업에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소통협력센터는 우리 지역을 살만하게, 지역으로 올 만하게 만드는 로컬브랜딩 활성화 거점 공간입니다.

소통협력센터는 어떤 일을 하나요?

소통협력센터는 군산 시민들이 도시의 자부심을 느끼게 하는 것을 넘어 군산을 찾는 사람들에게까지 그 매력을 전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는 곳입니다. 역사, 자연, 문화 등 군산의 면면을 새롭게 들여다보고 쌓아가며, 로컬 브랜드 및 크리에이터와 함께 지역 커뮤니티를 만들어가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로컬 크리에이터 살롱]을 통하여 군산에서 활동하는 청년, 활동가 등과 함께 라운드테이블을 진행하여 청년층이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의견을 듣고, [텀블러 클럽]을 통하여 친환경 군산의 이미지를 구축하고, [라키비움(Library+Archive+Museum)구축 프로젝트]를 통하여 변화할 군산시민문화회관에 무엇이 들어가야 시민들이 알차게 이용할 수 있을지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 여러 사업들을 진행하며 새로운 군산시민회관을 꾸려 나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소통협력센터 - 도시재생 - 시민문화회관 어떤 연관이 있나요?

김중업 건축가의 유작인 군산시민문화회관이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인정사업으로 리모델링을 통해 복합문화공간으로 내년 상반기에 재탄생하게 됩니다. 그곳에 소통협력센터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소통협력센터가 군산시민문화회관 공간을 운영하며 전시장, 세미나실, 로컬샵, 라운지바, 로비카페 등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곳은 추후 군산의 명소가 되어 다양한 계층의 시민과 관광객이 참여하는 로컬 브랜딩 활성화 거점 공간이 될 것입니다.

주민들은 어떻게 참여할 수 있나요?

소통협력센터 공식 개관 전에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기반을 다져갈 예정입니다. [시니어-청년 연계 프로젝트]를 통해 도시재생 주민활동에 어르신들의 참여를 높일 예정입니다. 그리고 [체인지메이커 스쿨]을 통하여 시민문화회관의 건축학적 가치를 배우고 홍보하는 다양한 계층·유형의 인력을 양성하고 [군산 로컬랩]을 통해 주민들의 도시재생 콘텐츠에 대한 아이디어를 사업화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현재 소통협력센터 사무실은 임시로 군산시 영화동에 자리 잡고 있으며 군산시민회관 리모델링이 완료되는 2024년 중 터를 옮길 예정입니다.



제 2회 군산 수제맥주&블루스 페스티벌

중양동 도시재생으로 탄생한 비어포트, 도시재생 홍보관 운영

여름 먹거리 축제인 ‘군산 수제맥주&블루스 페스티벌’이 6월 16일부터 18일 까지 군산 근대역사박물관 주차장 일원에서 유료 방문객 1만 9700여명이 찾는 등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 축제는 성공적인 도시재생 및 수제맥주 대표 도시브랜드 인지도 제고, 지역농업·도시재생·청년 창업을 연계한 관광자원 육성, 군산맥아 판로 확대 등을 위해 추진됐다.

중양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탄생한 비어포트에서 생산된 군산 수제 맥주를 널리 알리기 위해 올해로 2회째 맞은 축제에서는 작년에 이어 도시재생홍보관도 함께 운영하였다.

홍보관에서는 축제 기간 동안 도시재생에 관련된 간단한 설문지를 작성한 후 짝맞추기 게임과 뽑기돌리기 중 하나의 이벤트에 참여하여 선물을 받아갈 수 있는 행사를 진행하였다. 도시재생홍보 물품으로 제작된 손선풍기와 군산 보리 맥아박 푸드업사이클을 통한 생산품인 할매맥

아박 강정 중 랜덤으로 선물이 증정되었는데 홍보관부터 출입구까지 줄을 설 정도로 엄청난 인기를 끌어 도시재생 홍보관에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였다. 홍보관 운영과 이벤트 진행으로 도시재생 성공도시 군산을 더욱 더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올해는 한미 동맹 70주년을 맞아 한국수제 맥주협회에서 군산 맥아로 만든 기념 수제 맥주를 선보여 의미를 더했다. 또한 국내외 정상급 블루스밴드 26개팀이 참여해 수준높은 라이브 연주를 선사하여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중양동 도시재생 마을기업 등을 위한 「온라인 판로 확대 지원 교육」 성료

크리에이터 양성을 통한 지역상품 온라인마케팅 활성화 기대

군산시가 온라인 마케팅 시장의 확대에 대응해 도시재생 지역의 상인, 주민, 자생조직들이 온라인 마케팅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시행한 「온라인 판로확대 지원 교육(’23. 5. 9. ~ ’23. 6. 1)」이 수강생들의 큰 호응 속에서 마무리됐다.

이번 교육은 쇼핑크리에이터 양성과정에 28명, 온라인 판로개척 과정에(라이브커머스 18명, 스마트스토어 19명, 바이럴마케팅 22명, 클라우드펀딩 16명) 75명, 총인원 103명(누적인원)이 참여했으며 특히, 온라인 판로개척 과정에서는 쇼호스트들과 셀러들의 라이브 판매 방송 시연 등 온라인 마케팅 시장에서 활용가능한 실습 위주로 진행됐다.

이와 관련하여, 6월 9일에는 중양동 도시재생사업으로 만들어진 재보선창협동조합의 <할매맥아박 강정>을 네이

버 라이브커머스 방송을 통해 판매하여 동시간대 시청률 1위를 기록하는 등 많은 주목을 받기도 했다.

군산시는 판매자 등록, 방송 시연 등 실제 활용할 수 있는 실행 위주의 교육과정과 1:1 컨설팅이 향후에도 실질적인 온라인 판로 확대와 지속적인 매출 상승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하며 교육은 마무리됐지만 사후 컨설팅과 피드백이 진행되고 있어 지역 내 크리에이터들의 자생력 강화와 소득 증대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군산시 경암동 도시재생 인정사업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주민역량강화교육 성료!

경암동 주민들의 공동체 활성화와 주도적 도시재생사업(경암동 복합 생활SOC조성) 참여의 첫걸음인 주민역량강화교육이 지난해 6월부터 시작해 약 1년간 진행되었고, 6월 14일 청년뜰 강당에서 열린 수료식을 통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주민역량강화교육은 경암동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되는 복합시설의 일부 주민 공간에 대한 운영 주체 발굴, 공동체 법인설립 컨설팅, 자격증 취득, 시제품 개발, 공간 브랜딩 등 실제 사업화에 필요한 교육프로그램들로 진행됐다.

교육에 참여한 경암동 주민들과 군산시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수료식에서는 그간의 성과발표, 향후 계획에 대해 공유·논의의 장이 펼쳐졌다. 이를 통해 주민들의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이해도 고취와 실질적인 참여 역량 강화의 결과를 엿볼 수 있었다.

특히, 군산의 대표 관광지인 경암 철길마을의 관광객을 복합시설로 유입시켜 소득사업과 연계하고자 기획한 마을카페는 경암동 철길이 개통된 1944년을 모티브로 한 '철길스래 1944'로 이름지었다.

실제, 실습을 겸한 사전 모의 카페운영에서 135명의 누적 방문객을 기록하는 등 주민들의 참여와 열정을 고취시키는 계기를 만들었으며, 주민 9명이 바리스타 자격증을 취득해 카페운영에 대한 주민들의 참여 의지가 고취되었다.

수료식에 참석한 김봉곤 문화관광국장은 인사말을 통해 "도시재생은 낙후된 마을을 획기적으로 바꾸는 사업이 아니라 더 낙후되지 않도록, 서서히 활력을 찾아가게 하는 사업이며, 주민들이 계획한 '철길스래 1944'카페가 성공적으로 운영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격려했다.

군산시는 이번 교육을 통해 형성된 경암동 도시재생 인정사업 대상지 주민의 높은 결속력과 화합력을 바탕으로 주민이 자체적으로 사업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길 바라며, 필요하다면 전문 컨설팅 등을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재생활



군산시 도시재생지원센터

54021 군산시 구영7길 129

T. 063. 454. 4476~9 F. 063. 442. 1168